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6월 호
2026년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 Photo by Jangsook Kim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는 항상 가고 싶은 마을의 고향처럼 아름다운 장소이다. 고요하게 침묵하는 기도의 방식이 그곳에서 호강하며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기행문, 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을 다녀와서 (20페이지)

차례 (CONTENTS)

표지사진: 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 김장숙 : 1	수필: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 나정자 : 11
한인회: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 2	성경: 기독교윤리 (15) 산상수훈
현장보고: 미주한인회장대회 참관기 조영랑 : 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김민순 : 12
국내외 뉴스: 지난 두달의 주요 뉴스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4)
미국-이란 전쟁 발발, 환율 1500원 돌파, NASA	구브로(Cyprus): 바나바의 고향 김민순 : 14
아르테미스 II, 한국영화 왕과 사는 남자, 트럼프	수필: 화려한 내부와 화장실의 민낯! 임동섭 : 16
대통령,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서 총격 발생 : 4	선교: 땅끝 이스라엘이 가장 절실한 선교지 인가?
지역소식: 피닉스에서 개최된 한백회 (韓百會)총회,	신경일 : 17
5월 알버커키 시니어 목요일 모임,	영어이야기 (44): Benevolence and Malevolence
6월 알버커키 시니어 피크닉 안내 : 5	선지와 악의 이상목 : 18
수필: 일상이라는 이름의 기적 박광종 : 5	기행문: 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을 다녀와서
칼럼: 김 목사의 하루 김기천 : 6	김장숙 : 20
칼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정용 : 7	광고: 뉴멕시코 교회안내 : 23
수필: 웃음 이정길 : 8	뉴멕시코 한인 업소 안내: 24-26
수필: 이민의 광야에서 거인을 쓰러뜨리는 무기,	지역소식: UNM에서 어린이의 인지 능력 향상을
'믿음의 물매' 추석근 : 9	위한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성원 : 26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강한 바람과 꽃가루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넘게 피부 가려움과 눈의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 또한 지나가는 시기임을 생각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도 4월의 바람 부는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인회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3월 8일 정관위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영사업무가 있었습니다. 여권 6건, 위임장 25건, 가족 관계 증명서 49건, 국적상실 14건, 가족 관계 등록 5건, 비자 1건, 기타 38건, 전체 138건의 영사업무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최희수씨께서 The Council Room Restaurant에서 어르신들과 한인회 임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주셨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미주 한인회장 대회가 라스베가스 호텔의 파리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윤태자 조영랑 김덕향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달간의 강행군의 준비 기간으로 치루어진 행사였기에 준비 위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익 향상 차세대 리더쉽 육성과 정체성 확립등 토론과 강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지역 한인회마다 특성과 규모가 다르기에 지역에 맞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뉴멕시코 한인회는 모범 한인회상을 받았습니다. 공로는 전직 회장님 들께서 수고하고 이루어 내

신 결과입니다.

4월 12일은 임원회의와 4월 26일은 회관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대청소에 김진옥 이영혜 부회장이 항상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5월 12일 참전용사분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한국학교 소식으로는,

5월 1일 2일 이틀간 성인반 아동반 중강파티가 있습니다.

6월 5일 성인반 여름학기가 시작됩니다.

8월말부터 아동반 성인반 여름학기가 시작됩니다.

6월 21일은 6.25행사가 있습니다. 한국학교 학생들 참전 용사분들 교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실것이며 우리들은 이 행사를 통하여 모국 대한민국의 지난

날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후원하신분들은 위 점덕 300불 김현지 300불 신옥주 200불 최희수 200불 최신옥 100불 김길자 100불 윤민자 100불 송정옥 50불 최미나 40불 애라 100불입니다. 저를 만났을 때나 한인회 방문하셨을 때 후원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 11월에 한인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정관 2조 2항에 따라 올해 6월 30일전까지 등록하면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9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 한인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6월말까지 정회원 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자 드림 ■



현장 보고

2026 미주한인회장대회 참관기: 뉴멕시코 한인회의 위상과 화합을 확인하다.



조영랑

뉴멕시코한인회
이사장

뉴멕시코 한인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1일까지 라스베가스 파리스 호텔 (Paris Las Vegas Hotel)에서 열린 '2026미주한인회장대회'에 윤태자 회장, 김덕향 부회장, 조영랑 이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뜻깊은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정 동안 특히 윤태자 회장님의 헌신이 빛났습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정 차석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행사 전부터 마무리까지 쉽 없이 봉사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그 수고와 정성을 곁에서 직접 확인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회장 정면에 윤태자 회장님께서 당당히 들고 입장하신 후 세워진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기'를 보았을 때의 그 벅찬 자부심은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오늘의 비전이 내일의 리더로”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총회장 및 미 전역 전.현직 한인회장과 차세대 리더 250여 명이 모여

- 미주총연 핵심 정책사업, ● 한인회 분류 및 갈등 해결, ●정부 정책과의 협력, ●E-4 비자 문제, ●재외선거 (우편 투표 도입 방안), ●복구국적 연령 하향 (만 40-50세)등 우리 240만 미주 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졌습니다. 또한 CKA (미주한인위원회) Larry Henschel 의 특별 강연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으며, 다음날 이어진 전.현직 회장, 차세대 리더 등 그룹별 토론

을 통해 차세대와 우리 2세들에게 한국 문화 계승과 한인회 참여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으로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의 ‘남북관계 미래와 재미동포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의 ‘모국연수 및 장학제도’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저희 뉴멕시코를 포함한 21 지역 한인회에서 보낸 사례 중 우수 모범 한인회 후보 5 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1903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몇 한인들의 발기로 한국 독립운동 발상지와 한인 친목회가 조직된 곳 샌프란시스코(김한일 회장)가 이번대회의 첫번째 최우수 모범 한인회로 선정이 되었고 상금을 즉석에서 후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31대 서정일 미주총회장님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였고, 조규자 전 회장 (서남부연합회장, 총연합회 재정 수석회장)님과의 유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주최 만찬 축하공연에서는 작년10월말 저희집에 일주일간 머무시며 산타페 오페라 웨스트 무대에 서셨던 바리톤 변동민 교수 (네바다 한인음악협회장)께서 직접 애국가와 축하곡을 들려주셔서 귀한 인연 때문인지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폐회식을 모범한인회 시상식과 '미주 한인회장들의 밤'으로 마무리 하고 각각 참가상을 받았 습니다.

미 전역의 리더들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며,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도 더욱 단합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발전하

기를 간절히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대회였지만 미주 동포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며 저에게는 많은분께 배우고 생각할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왼쪽부터 윤태자 회장, 서정일 연합총회장, 조영랑 이사장, 김덕향 부회장



왼쪽부터 김덕향 부회장, 조규자 전 뉴멕시코 15대 한인회장/현 서남부연합회장, 조영랑 이사장



뉴멕시코 한인회기를 들고 입장하는 윤태자 회장



조영랑 이사장과 변동민 교수



등록 테이블에서 봉사 중인 윤태자 회장

국내외 뉴스

지난 3,4월 주요 뉴스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전역의 여러 지점과 도시에 기습 공습을 감행하여,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이란 관료들을 살해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미군 기지 및 지역 내 미국의 우방국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했다.

3월 4일

한국의 환율: 한국의1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였다.

3월12일

이란 전쟁: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NASA 아르테미스 II 프로젝트

달 근접 비행 미션으로 아르테미스 II를 발사하여,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는 유인 비행을 시작했다.



4월 1일 아르테미스 II가 플로리다에 위치한 NASA 케네디 우주 센터의 발사대 39B에서 발사되었다. (NASA)



2026년 4월 2일, 달 전이 궤도 진입 연소를 마친 후 NASA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이 촬영한 달빛에 비친 지구의 모습. 태양은 지구 뒷편에 있다.

4월 6일

NASA: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의 근접 비행을 하였다. 오리온 우주선이 달 뒤편을 지나면서, 40분 동안 예정된 지구와 교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4월 7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이어,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4월 10일

NASA: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 착수했다.



아르테미스 II는 2026년 4월 10일, 초속 약 11km(시속 약 24,000마일)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10,000°C에 달하는 플라즈마 막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6분간 통신이 두절되었다. 오리온 캡슐의 열 차폐막은 승무원들을 화씨 3,000~5,000도에 이르는 고열로부터 보호했으며, 이후 태평양에 착수함으로써 9일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NASA.gov)

4월 11일

한국영화 : 《왕과 사는 남자》는 대한민국 상영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 (알버커키에서는 Cinemark Century Rio Plex 24에서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상영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The King's Warden'이다. (뉴멕시코 광야의 소리 페이스 북 3/25/2026)



4월 21일

이란 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대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6.4.26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서 충격 발생

VOA 한국어 방송은 2026년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중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을 긴급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신의 콜 토머스 앨런(31)이 산탄총 등을 소지한 채 행사장에 난입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총격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JD 밴스 부통령은 열린 행사장에서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 있던 보안 요원 한 명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으나, 방탄조끼 덕분에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총성이 난 순간 주변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옆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오른편의 웨이지아 장(백악관 출입기자단 회장)이 놀라는 모습.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주최하는 연례 만찬 행사로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의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행사 중 총성이 났다.

지역 소식

피닉스에서 개최된 한백회 (韓百會)총회, '한국의 길' 사적지 추진 후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된 한백회(미국 전·현직 한인 회장들의 모임) 총회에 뉴멕시코에서 정풍자, 조규자, 민명희 전직회장이 참석했다. 총회는 1880년대 한인 철도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뉴멕시코주 린콘(Rincon)에서 발견된 '한국의 길 (Corea Street)'이 사적지(史蹟地)지정을 받도록 추진하는 피닉스 한인회에 500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 외에도 장학금 1,000달러를 별도로 지역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했다.

알버커키 시니어(Hope Group) 5월 목요 점심 모임

매월 세째 주일 목요일 11시30분에 모이는 알버커키 감리교회 주최의 시니어 점심 모임은 지난 4월 16일에는 봉사자를 포함하여 30명이 모여서서 함께 점심식사와 친교시간을 갖었다. 5월의 점심식사 모임은 5월 21일 목요일 11시30분 알버커키 감리교회이다. 교회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모임인 Hope Group에 관한 문의는 전화 505-514-3063(최신옥 집사)로 하면 된다.

알버커키 시니어 (Hope Group) 6월 피크닉 초대

6월의 알버커키 시니어 목요일점심 모임은 토요일로 변경하여 야외 피크닉 행사를 거행하기로 했다. 장소는 엘레나 가예고스 오픈 스페이스(Elena Gallegos Open Space)에 있는 키와니스로 산디아 산 기슭에 자리잡은공원이다. 알버커키 시내와 주변 산디아 산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개인이 입장시에는 주말의 경우 차량당 \$2 이지만 교회에서 단체 예약시 입장료를 지불했

수필

일상이라는 이름의 기적



박광종
뉴멕시코KOWIN
지부장
하이랜드 대학교수

세월이 무상하다는 말이 깊이 체감되는 봄의 끝자락에서 펜을 듭니다. 오늘은 코윈 뉴멕시코 회장이나 미 남부 담당관이라는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도 현재가 생애 가장 귀한 시간임을 상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갑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지인들과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자, 평소 서먹했던 관계조차 회복할 기회를 잃은 채 고립되어 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했습니다. 설령 인연들을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다가가지 못한 채 마스크 너머 묵묵히 목례만 나누고 멀리서 떠나 보내야 했던 그때의 뒷모습들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토록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현관을 우당탕거리던 소리를 그리워했던 날들이 이제는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때의 답답함을 잊고, 휴지와 쌀을 사는 개수조차 제한되었던 기억들을 분주함 속에 흘

려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 미래를 가늠할 수 없던 그때,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어쩌면 누구에게겐 허락되지 않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너무나 연한 일상이 되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자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왜 '무소식이 희소식'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무탈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감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누리는 이 평화조차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글을 마치며 소포클레스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오늘을 보내며 반성해 봅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과연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

음으로 개인의 입장료는 없다.
일시: 6월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시는 길 : 아카데미와 트램웨이 네거리에서 한 블록 북쪽 Tramway Blvd 에서 Simms Park Rd 로 들어감. (아래의 약도 참조)
질문: 505-514-3063(최신옥 집사) 또는 VOICEofNM@gmail.com 으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김 목사의 하루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언제부터지 운전하면서 조급증이 생겼다. 벌써 계기판에 경고등이 엔진체크 사인부터 5개나 생긴지 5개월이 지났다. 문제는 차 밑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차고 주차 자리에는 질척하게 젖어 있었다. 물론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주차 자리에도 기름 자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신호등에서 대기하다보면 앞에서 기름 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주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싫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저 멀리 보이는 좌회전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졌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려고 속도를 높였다. 신호등을 따라 움직이는 차들을 이내 따라잡았다.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다. 그런데 너무 빨리 돌리는 바람에 쿵 소리와 함께 차가 튀어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달렸다. 중간에 있는 분리대 역할을 하는 보도블럭에 부딪힌 것이다. 타이어가 터진 것 같아 차 유리문을 내렸다. 차가 달리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계속 났다. 다행히 집에까지 도착해서 보니 타이어 옆 부분이 크게 찢어졌고 공기가 완전히 빠져서 타이어가 내려앉았다.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경 작업을 하면서 한 시간이라도 아껴야 할 처지에 차를 고쳐야 하는 상

황이 벌어진 것이다. 엔진 경고 사인도 보이고 기름도 새고 있지만 차가 설 때까지는 타고 다니려고 했었다. 차가 다니다 설 경우에 그때 차를 손보려고 한 것이다. 나는 차를 직접 고쳐서 타고 다닌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작년엔 집에서 손수 엔진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당장 타이어를 갈아야 할 판이다. 시간이 아깝지만 도구를 준비해서 공항 근처에 있는 YouPullAndPay라는 정크 야드를 갔다. 이곳은 차 문제가 생기면 가서 차 부품들을 뽑아오는 곳이다. 타이어들도 종류가 많다. 차 종류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타이어들을 사용한다. 찢어진 내 타이어는 225/55 R17이었다. 폐차된 수백 대의 차량들 가운데 내 차와 같은 2009년 Subaru Forester를 찾았다. 타이어를 보니 꽤나 쓸 만 했다. 일반적으로 뒷바퀴보다 앞바퀴가 빨리 달아버린다. 그래서 뒤에 두 바퀴를 떼어내서 알루미늄 휠과 함께 150불을 지불하고 가지고 간 차에 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주 가는 맥도날드에 들렀다. 차 안에 가지고 갔던 Laptop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컴퓨터를 켜다. 늦어도 오늘 금요일까지 “프락시스 속회공과”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오는 주일에 프린트를 해서 속회에 나눠줄 수 있다. 정해진 형식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질문들을 작성했다. 그

리고 완성된 원고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오늘까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광야의 소리 원고 마감일이 다가왔기에 가능하면 빨리 보내야 한다. 두 달에 한번 발간하는 소식지이지만 마감일이 다가올 때면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프락시스 속회 공과를 발송하고 나서 원고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설교나 성경 해석 등의 내용은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글들이 있기에 나는 다른 글을 쓰기로 했다. 나의 문득 오늘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의 일상에 관한 글을 만들었다.

글이 끝나면 이메일로 발송하고 맥도날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집에서는 여전히 성경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헬라어 성경 본문에 대한 비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신약 사본들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학술적이 기호들을 검토하면서 원고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다. “Textus Receptus, Novum Testamentum Graece” 이것이 곧 출판하게 될 나의 책 제목이다.

아직도 차 안에는 두 개의 타이어가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칼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정웅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진짜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할때는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이 보이다가도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의 본색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내 방식대로'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크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며 그 높고 귀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심오한 믿음의 깊이, 투철한 순종의 절개,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부터 2,600여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절,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 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엄명을 내려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맞춰 무릎을 꿇고 절 하지 않을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 - .

그때 믿음의 용사 다니엘의 세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기는 커녕 우주만물의 창조주 이신 하나님 편에 굳굳히 서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다고 확고 부동한 신앙적 태도로 천명하였던 것

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릎을 꿇어도 우리는 그리할 수 없다고 - - .

오늘날도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세사적 성공 앞에 빠른 속도로 무릎 꿇고, 타락하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우리의 교회와 교인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한국의 한 Gallup 조사에 의하면 pandemic 전후로 교회가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보고가 나와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이 세친구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그 불속에서 건져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좋아 하며 믿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성숙한 믿음은 '응답' 너머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며 믿습니다. 병이 그대로 있어도 선택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길이 아직 막혀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랑하는것 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사랑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세칭년의 변치않은 믿음 이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분노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세칭년을 불 속에 던졌던 것입니다. 왕을 놀라게한 것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 속에 던졌던 자기 부하들은 불의 뜨거운 열기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속에서 던져진 세사람은 오히려 활기차게 활활 타오르는 불속을 걷고 있었고, 세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들이 함께 활보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왕의 놀라움은 기절할 지경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능하시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간직한 세칭년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뜨거운 불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었고, 불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는 능력 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뜨거운 질병의 불, 또는 가정이나 이웃과의 뜨거운 관계의 불, 기타 등등의 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은 멸망의불이 아니고 정금 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한 평생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 충성을

웃음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웃는 행위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본능 중의 하나다. 우습다고 판단되면 안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입이 벌어져 소리를 내게 된다. 눈과 입 주변에 존재하는 80여 개의 근육 중 40개가 웃는 데에 쓰인다. 배를 잡고 웃으면 복근뿐만 아니라 횡격막까지 움직이고, 심하게 웃으면 눈물도 난다.

우리만큼 웃음을 다양하게 표현해 온 민족도 드물지 싶다. 표정이나 소리의 유무 그리고 감정 상태에 따라 나누는 우리의 웃음은 무려 60여 가지에 이른다.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미소, 마지못하여 웃는 쓴웃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냉소 등은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 허탈웃음, 놀란웃음, 감동웃음, 억지웃음, 호탕웃음, 너털웃음, 함박웃음을 짓는다. 조선 제17대 효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조는 온 산 가득히 만발한 꽃이 봄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웃음이라고 했다.

청강에 비 듣는 소리
그 무엇이 우습기에

만산(滿山) 홍록(紅綠)이
휘두르며 웃는구나

춘풍이 몇 날이라
웃을대로 웃어라

웃음은 사람을 느긋하게 하고, 긍정적이게 만들며, 사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이해하여 파악하게 해준다. 쉽게 자주 웃을 수 있는 능력은 문

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증진시켜 세상을 보다 높은 위치에서 관망하게 만든다. 놀랄만큼 큰 치유와 회복 능력도 지니고 있어서 심신의 건강과 감정을 부양해 주기도 한다. 재미있는 웃음만큼 사람의 마음과 몸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정상으로 되돌려 주는 것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웃음이 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며,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한다. 면역 세포수나 감염에 대항하는 항체수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혈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증가시켜 심장병이나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으로는 생활에 기쁨과 흥미를 더해 준다.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며, 기분을 좋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강화한다. 웃음은 사람을 불안, 슬픔, 화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사회 생활의 면에서는 대인 관계를 지속하거나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타인을 끄는 힘을 길러 준다. 집단의 결속을 증진하여 팀워크가 더 큰 성과를 내게 하고, 충돌이나 분쟁을 감소시킨다. 타인과 함께 웃으면 긴밀한 우정이 형성되며, 그 우정은 스트레스, 불화, 실망 등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작용으로 불신, 비판, 판단, 노여움 등을 없애 준다.

어린이는 하루에 백 번도 더 웃는데 성인이 되면 덜 웃는다. 하지만 웃을 기회를 찾거나 만들면 건강의 유지에는 물론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운명도 호전된다.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웃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 차이는 특히 암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뚜렷했다.

미소만 지어도 삶이 바뀌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웃음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웃게 만들어 주는 일이나 물건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상이나 차 안에 장난감을 놔둔다. 사무실에 익살맞은 광고를 붙인다. 웃기는 영화, 티브이 쇼, 유튜브 등을 시청한다. 어린이들이나 애완 동물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갖는다. 웃기는 책을 읽고, 웃기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웃기는 요가를 배운다. 일부러 명칭한 짓을 한다. 볼링이나 가라오케를 즐긴다.

삶에서 당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실수나 사소한 약점을 웃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힘들어도 웃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본다. 자신의 행복에 투자한다는 셈치고 그런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는 습관은 쉽게 몸에 배기도 해서

<10 페이지로 계속 >

수필

이민의 광야에서 거인을 쓰러뜨리는 무기, '믿음의 물매'



추석근
산타페 한인 교회
담임목사

살다 보면 누구나 거대한 벽 앞에서 순간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그 벽은 때로 높은 언어의 장벽으로, 때로는 차가운 인종차별의 시선으로, 혹은 속수무책으로 작아지는 경제적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경 속 다윗이 마주했던 ‘골리앗’은 수천 년 전의 전설이 아니라, 낯선 땅에 뿌리 내리려 분투하는 우리 삶의 문턱마다 버티고 서 있는 시련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종류의 시선: 계산하는 눈과 신뢰하는 눈

사울 왕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저 ‘무모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소년이 철갑옷을 두른 거구의 용사와 싸우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죠.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나이에 여기서 뭘 하겠어?”, “학위가 없어도 현지 경력이 없으면 안 돼.” 세상의 눈은 늘 우리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계산하며 기를 꺾어 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대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키’를 썰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승패는 이미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에

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땅의 거대함에 압도되기보다,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의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벗어 던지는 용기

사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놋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가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민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의 옷’을 입으려 애씁니다.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한 과도한 치장, 나에게 맞지 않는 화려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남들이 좋다는 방식만을 쫓는 삶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골리앗의 무기를 탐내곤 합니다.

다윗은 과감히 그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때 묻은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믿음이란 ‘나 아닌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서툰 영어와 투박한 손마디일지라도, 그것이 정직한 나의 모습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골리앗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울 때, 소년의 입에선 천둥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외롭고 고달픈 이민의 밤마다 나를 견져내셨던 그분을 향한 ‘체험적 신뢰’였습니다. 삶의 본질은 배경이나 스펙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다

물매를 떠난 돌맹이 하나가 거인의 이마에 박히는 순간, 온 세상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돌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수만 번의 연습과 성실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타국 땅에서 밤늦게까지 가게 불을 밝히고, 서툰 언어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

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준비된 성실함'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덧입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믿음의 물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물매를 드십시오

사랑하는 이민 가족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을 주눅 들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영주권의 벽입니까, 자녀 교육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입니까?

세상의 갑옷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힌다면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초라한 '돌맹이'를 소중히 바라보십시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이 더해질 때 그것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민의 삶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의 물매를 고쳐 쥐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이곳에서도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그 승리의 순간이, 이미 저 언덕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8 페이지에서 계속 >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도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여 그대로 흘러 보낸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바꾸면서 바로잡는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예를 들어 명상, 산책, 음악 감상, 일기 쓰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등을 정하여 두고 필요하면 언제나 이용한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의 은혜를 입고, 부모의 사랑과 주위의 배려로 삶을 영위한다. 불평 불만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생긴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항상 나오면 늘 웃을 수 있다. 따뜻한 햇살이나 커피 한 잔에도 고마움을 느끼노라면 마음이 밝아지며 기쁨이 저절로 솟는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귀중한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돈도 들지 않고 지극히 사용하기 쉬우며 아주 멋진 자원이 웃음이다. 삶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웃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7 페이지에서 계속 >

다 바친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암선고를 받아 온 교회와 가정이 합심하여 기도 했으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오랜 투병 중 당신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 주님과 매일 매일 함께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시는 날, 권사님 주위에 둘러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애들아! 엄마는 병 고침받는 어떤 기적보다 더 귀하고 귀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여한이 없구나! 이제 주님께 안겨서 영생을 누릴 터이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신나는 승리의 찬송을 불러 주렴" 이것이 산 소망을 간직한 엄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끝내 승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교만, 불가능 그리고 불신앙은 여기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



KIM'S 한국식품/식당 ORIENTAL MARKET

FOOD, GIFTS & MORE

Mon-Sat 10:00 am - 7:00 pm
Sun 11:00 am - 5:00 pm

(505) 296 - 8568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Tuesday-Friday 11:00am-2:30pm
4:30pm-8:00pm
Saturday 11:00am-8:00pm
Sunday - Monday Closed



전화: (505) 308-3179

웹사이트: kokioabqnm.com

주소: 8019 Menaul Blvd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10

수필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깊은 산 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 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대요.”

빨갭게 나왔던 나무순들이 며칠사이
에 파랗게, 아주 파랗게 몽글몽글 한꺼
번에 떴져서 몰려나옵니다. 그래서일
까?. 내 입에서도 뜬금없이 어울리지
않는 동요가 튀어나옵니다. 변덕은 심
해도 봄이 불러 내는 힘은 꽤나 센가
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에선 전교
인 공과 교재로 ‘풍요로운 삶 (당신 안
에 있는 예수 생명) 을 가지고 집중 셀
모임(Cell Meeting)을 매 주 모였습니
다. 마침 내가 인도하고 있는 셀원들은
80세 이상 고령으로 15분이셨습니다.
모두가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으로
평생토록 헌신해 오신 것을 이제 굽어
진 허리, 관절이 닳아서 균형이 안 맞
아 삐걱대는 다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분 들 이였습니다.

공과 순서에 따라 한 분에게 ‘오늘 성
경 요절 말씀을 크게 봉독해 주시겠습
니까?’ 하였더니 ‘아유, 보이지가 않아
요’ 하십니다. 또다시 다른 분에게 ‘오
늘 요한복음 1:12 에서 말하는 ‘권세’
를 아셨지요? 한번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했더니 ‘안 들려요.
게다가 금방 들었어도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걸요.’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찰나를 놓칠세라 ‘그
러시구먼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더라
구요. 정상!’ 하면 모두들 웃음으로 너

그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사실 그건 농
담이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위커에 의지해서 오시는 분들,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눈이 잘 보이지 않
는 분들,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의 그 젊
은 날! 노련하고 짱짱하셨던 옛날의
휠름이 꺼꾸로 돌아가며 자연 만감을
끌어안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
울부짖을 때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나
니 ...’ 라고 하셨지요? 눈 밝고 귀 밝
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
기 모인 노종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보이
지도 않고 잘 들리지 않을뿐 아니라 애
써 들은것들을 깜빡깜빡 해서 기억치
못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의 우리 가정
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서기 까지 격동
하는 한 세기를 버텨온 역군이요 증인
들 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
님께 응답하는 여생되게 도와 주시옵
소서.’ 합니다.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가 하면 잘 들리지도
않아서 삶 자체가 어눌해지신 이 분들
과 한 시간을 끝내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 쫄쫄하게 금방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고통에 답할 수 있
을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일
들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고 왔던 것일
까? 과연 충분히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 왔던 것일까?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씀을 기억하며 심판 받을 자처럼 사느
라 아파 본적은 있는지? ... 질문들이
고개를 쳐 듭니다. 돌아보니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다는 토끼가 따로
있을까 싶어집니다.

오늘도 은퇴목사회 월례예배가 있어서
참석하고 오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참하시게 된 것과 또 몇
번 말씀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귀
어두우신 분께 옆에 계시던 김창길 목
사님께서도 ‘꽤넘 치 마세요. 그게 정
상이에요’ 하셔서 또 한 번 이 나잇대
엔 이런 현상들이 ‘정상’ 인 것을 나름
대로 확인하는 중이었는데.

그 정상이란게 어디 노구 노파들 에게
만 적용되는 진찰일수 있단 말일까! 번
뜩 얘기 하나가 됩니다.

뉴욕 평통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사
람이 관례에 따라 한국 대통령을 알현
하러 간 자리. 담화중인 대통령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던 뉴욕 평통 새 위원
장이 꿈쩍! 졸더라는 것이었죠. 옆에서
이 것을 목격했던 분이 그 위원장 부인
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랍니다. ‘당신
남편이 대통령 코앞에서 꿈쩍꿈쩍 졸
더라구.’

그랬더니 그 부인 놀라기는 커녕 심드
렁히 하는 말, ‘아, 그 양반, 하나님 앞
에서도 조는 분이예요’ 하더라.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함께
한 식구 한 가족되어 사는 문화로 살아
온 세대! 자로 재고 버튼에 예민한, 몸
에 익혀지지 않은 첨단기계 문명과 잔

<13 페이지로 계속 >

기독교윤리 (16)

산상수훈 마 6:9-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영화 위룸

영화 위룸을 보면 아내 엘리자베스와 남편 토니의 고통스런 부부관계의 사이클을 끊어내는 계기가 기도의 골방 위룸에 있었습니다. 리얼터를 하는 엘리자베스는 집을 팔려는 기도의 멘토 클라라 윌리엄스를 만나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골방 위룸에서 엘리자베스는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남편이 아니라 세 구절의 말씀을 위룸에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후 3:3).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 4:7).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엘리자베스의 기도는 연약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커피처럼 영적으로 냉랭했던 엘리자베스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나니 그녀의 삶이 달라졌고, 가정도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밤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 다니엘르

와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 토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내가 되었으며, 동생 신시아를 위한 기도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2.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13절의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누가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제자들의 고민은 같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인 주 기도라기 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이며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품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3.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모두 6가지 간구를 올립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기도의 6가지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의 대

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는 우리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키신 하나님이시며, 야곱에게까지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여주십니다. 헬라어 아버지(파테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빠에 해당되는 아람어 아바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혁명적인 호칭의 변화입니다. 둘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나라 말에 우리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동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해야하지만, 기도는 합심하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골방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는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셋째,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합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상 8:27-28).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

<11페이지에서 계속 >

인하도록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당혹함을 밥 먹듯 해야 하는 세대! 세상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자주 머쓱해지고 자꾸 뒤쳐지는 세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지 못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들이 있기에 끊어질 듯 팽팽한 세상에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리라.

잘 걷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잘 기억치 못하는 노인이 계신 집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대대로 기억하시리라. 아멘. ■

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하물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성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인 전능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친밀하게 신뢰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탐사 (4)

구브로 (Cyprus): 바나바의 고향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행 13:4)

1. 서론: 세계 선교의 변곡점과 구브로의 전략적 선택

사도행전 13장은 기독교 역사가 유대 지경의 국지적 운동에서 열방을 향한 범세계적 운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선교적 변곡점(Missional Turning Point)’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선교가 스테반의 환난으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비자발적 흩어짐’의 산물이었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공동체의 순종이 결합된 ‘자발적 파송(Intentional Sending)’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달리합니다. 신약학자 F.F. Bruce는 사도행전 13장을 “초대 교회가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 운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문이 열린 장”으로 정의하며, 이 사건의 신학적 무게를 강조합니다. Ben Witherington III 역시 안디옥 교회의 주도적 선택에 주목하며, 첫 기착지로 구브로(Cyprus)를 설정한 것이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논증합니다. 구브로 섬 선교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와 이방 종교의 견고한 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첫 시험대였으며, 사도적 선교가 지닌 역동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브로 사역의 서막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섬이 1세기 로마 세계에서 가졌던 역사적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1세기 구브로의 역사적 배경과 로마 행정 체계의 정밀성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9,251km²)으로, 고대부터 ‘구리(Copper)’의 어원이 될 만큼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 요충지였습니다. 트로도스(Troodos) 산지에 집중된 구리 광산은 섬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하는 산업적 기반이었으며, 이는 제국 내에서 구브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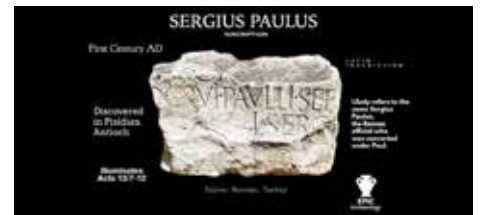


〈구브로 섬의 지리적 위치〉

누가가 사도행전 13:7에서 당시 구브로의 통치자 서기오 바울을 ‘총독(Proconsul, ἀνθύπατος)’으로 기록한 것은 역사적 사료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로마의 속주는 황제가 직접 군대를 관할하는 ‘황제 속주’와 원로원이 관할하는 ‘원로원 속주’로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황제 속주에는 ‘레가투스(Legatus)’가 파견된 반면, 원로원 속주에는 ‘총독(Proconsul)’이 파견되었습니다. 구브로는 기원전 22년경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원로원 속주로 확정되었기에, 누가가 사용한 ‘총독(안티파토스 ἀνθύπατος)’라는 칭호는 역사적 사실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역사학자 W.M. Ramsay는 당초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에 회의적이었으나, 이러한 로마 제국의 행정적 명칭의 정밀성을 목도한 후 “누가는 일류 역사학자”라고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역사적 실재성 또한 고고학적 데이터로 입증됩니다. 구브로 북서부 솔로이(Soli)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Sergios Paulos’라는 이름이 명확히 새겨져 있으며, 로마 티베르강 유역에서 발견된 비문은 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티베르강 행정관(Curator of the Tiber)’을 역임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서기오 바울의 가문이 제1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 지역인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연결된다는 점은 선교팀의 향후 경로 설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견고함은 구브로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결합하여 선교팀의 이동 경로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비문〉

3. 지리적 배경: 살라미에서 바보까지의 가도

구브로의 지형은 북부의 키레니아 산맥과 남부의 트로도스 산맥이 중앙의 메사오리아(Mesaoria) 평원을 감싸는 구조입니다. 선교팀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하며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간’(행 13:6) 경로는 당시 메사오리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로마 시대 포장 가도(Via)를 따랐을 것입니다. 약 180km에 달하는 이 구간은 도보나 당

나귀를 이용할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는 여정입니다. 선교팀은 트로도스 산맥 남단을 우회하거나 평원의 중심가도를 통해 섬을 동서로 관통했습니다. 구브로 섬의 최초의 도착지 살라미(Salamis)는 수리아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Seleucia)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 닿는 자연스러운 첫 기착지이자 섬의 경제적·상업적 수도였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Paphos)는 섬의 서남단에 위치한 로마 행정의 중심지로, 총독 관저(Praetorium)가 위치한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의 경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섬의 경제적 관문에서 정치적 정점으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복음의 행진이었습니다.

4. 살라미 사역: ‘여러 회당’ 을 통한 네트워크 선교

이제 선교팀이 첫발을 내디뎠던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살라미는 15,000명을 수용하는 원형극장과 체육관(Gymnasium)을 갖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대규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5의 ‘여러 회당(synagogues)’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유대



〈살라미의 로마 유적지〉

선교팀은 회당이 가진 네 가지 전략적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이미 성경적 배경을 가진 ‘준비된 청중’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방문 랍비에게 기회

를 주는 관습을 통해 ‘공식적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둘째, 도시 내 유력자들과 연결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넷째, 구약이라는 ‘성경적 공유 기반’ 위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논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원 마가 요한의 역할은 ‘수행원(히페레테스 hyperetes)’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4:20에 서처럼 ‘회당의 수종자’ 혹은 ‘성경 두루마리 관리자’를 의미하며, 선교 현장에서 예비 교리 교육과 행정적 보조를 담당하는 공식적 직임이었습니다.



〈살라미의 바나바 무덤위에 세워진 바나바 수도원〉

5. 바보 사역과 영적 전쟁: 총독의 회심과 복음의 권능

살라미의 회당 사역이 유대 공동체를 향했다면, 섬의 반대편 바보에서는 이방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영적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UNESCO

세계문화유산(1980년 등재)으로 보호받고 있는 바보는 정치적 권위와 이교 숭배가 복합된 도시였습니다. 총독 관저로 추정되는 ‘데세우스의 집(House of Theseus)’ 유적 인

근에서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대면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당대 로마 상류층의 특징인 지적 개방성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그의 곁에는 ‘바예수(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종교적 고문으로 자

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팔레파포스(Palaipaphos, 구 바보)의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교적 기류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향해 선포한 심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신학적 의미를 담은 표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바울은 바예수를 ‘마귀의 자식’으로 규정하며 영적 전쟁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은 그가 영적 진리를 가로막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의 징계였고, ‘어느 때까지(for a season)’라는 표현은 이 심판이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징벌’임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파포스 고고학 공원에 남아 있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는 채찍 기념교회와 바울의

기둥(Pillar of Saint Paul)은 당시 선교 사역의 영적·육체적 고난의 현장성을 상징합니다. 총독은 기적 자체보다 그 배후에 있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회심했습니다. 이 강렬한 승리는 현대 선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바보의 사도 바울 채찍 기념교회와 바울의 기둥〉

6. 현대적 함의: 레슬리 뉴비긴의 관점으로 본 구브로 모델

영국의 인도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서구 사회가

화려한 내부와 화장실의 민낯!

임동섭

목사
에과도르 선교사



한국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규모가 크고 내부가 화려했습니다. 세련된 조명, 감각적인 가구, 그리고 정성을 다해 내린 커피 향까지. 공간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내부와는 전혀 판판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손을 씻고 나서였습니다. 벽에 걸린 페이퍼 타월 박스는 텅 비어 있었고, 핸드 드라이어는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손을 닦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카페는 나를 정말 환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지갑만을 환대하고 있는 걸까?”

최근 한국의 상업 공간들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작년보다 유독 더 심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에서도 페이퍼 타월이 없고, 핸드 드라이어가 작동하지 않는 곳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인테리어에는 수억 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손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화장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겉은 명품인데 속은 낡은 형견을 덧댄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페이퍼 타월’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을 ‘부수적인 공간’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계적인 맛 집 지표인 ‘미슐랭 가이드’의 조사관들은 식당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방은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돈할 수 있지만, 화장실은 그 집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님의 건강과 편의를 얼마나 진심으로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화려해도 화장실이 엉망인 곳은 ‘기본이 안 된 곳’으로 간주되어 결코 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닿는 입구, 사진이 잘 찍히는 조명,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좋은 외관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려가 필요한 은밀한 공간에는 인색합니다. 이것은 마치 침몰하기 직전의 ‘타이타닉 호’와 닮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여객선 타이타닉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선내 연회장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배의 거대함과 화려한 장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구명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본질적인 결함은 외면했습니다. 겉치레에만 열중하다가 정작 생명과 직결된 본질을 놓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페이퍼 타월 없는 화장실’은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오르고 있는 본질적

결핍의 작은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영국 성 안드레 대성당 건립 당시의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조각가가 성당 높은 천장 구석,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아주 정교한 천사 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어차피 너무 높고 어두워서 아무도 저 조각의 뒷면은 보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손목이 나가도록 정성을 들여 깎는 건가? 적당히 하게나!” 그러자 조각가는 땀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보고 있다네!”

이 조각가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의 영성’입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온라인 프로필’을 관리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일부를 떼어,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내면이라는 이름의 ‘화장실’을 정돈해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나의 정직함, 사소한 습관,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세밀한 배려가 곧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이 말씀은 비단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겉치레에 열광하고 ‘보여주기’에 지친 이 시대를 향한 따뜻한 위로이자 서늘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이력서나 세련된 말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흘리는 진실한 눈물과 타인을 위해 몰래 채워 둔 페이퍼 타월 한 장의 마음을 보십니다.

<22 페이지로 계속 >

선교

땅끝 이스라엘이 가장 절실한 선교지인가?

Why is Israel the last, urgent mission Field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중동에 위치하며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과 국경을 맞닿고 있고 남한 땅의 1/5 규모이고, 인구는 9백만명 (유대인 7백만이고 아랍 이스라엘 2백만)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 약 8백만 명이고 미국에만 6백만이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활약하며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종족이며 종교로는 유대교 (Judaism) 25%, 비종교인 60%, 이슬람 14%, 기독교 0.5%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땅끝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재산몰수, 쫓겨남, 대학살 등의 핍박을 받을 때 항상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서 십자가를 보면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핍박과 죽음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핍박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됨. 둘째로 십자군 전쟁(1099)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총칼을 든 십자군 재산 몰수 및 죽임을 당함. 셋째로 스페인 정복 : (1400 AD)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강제재산 몰수와 추방 및 죽임을 당함. 넷째로 히틀러의 유대인 6백만 명 홀로 캐스트 대학살 사건, 십자가를 목에 건 카톨릭 주교들이 히틀러 나치에 동조 함으로 핍박이 고조에 달함.

구한말 한국의 이씨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이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이뤄질 지음 1865년과 1884년도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토마스(Thomas), 알렌(Allen), 아펜젤러(Appenzeller), 언더우드(Underwood)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설립하여 조선사람들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독일에서 루터교회(Lutheran) 선교사 카를 귀츨라프(Karl Gützlaff)는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선교사 보다 30년 앞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한국인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6.25 전쟁 때에는 유엔군 참전국 16개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은 현역군인 4천명과 많은 의약품을 보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사수 전투와 인천상륙 작전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하나씩 이뤄지는 것을 볼 때에 끝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을 돕고 후원해야 합니다.

1948년에는 기독교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현재 2026년에는 256개 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로마서 11장 26)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코뿔소 용사처럼 달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25년 가을에 ‘한새사람 축제에 배’를 유대인 목사 30여 명이 이스라엘에서 내한하여 은혜스럽게 서울 김포 영광 교회에서 거행했습니다. 에베소

서 2장 15절 “이는 이들로 하나를 만드사 한새사람 (One new man out of Two)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어 16절에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 하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달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신경일목사 씀

To: English Speaking readers

Why is Israel the last, urgent mission Field

Because in Israel religion distribution: Judaism =25%. No religion = 60%. Islam 14%
Christianity: less than 1%.
According to Matthew.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that is: 2nd coming of Jesus is imminent. He will judge the evil and save Christians to get into millennium Kingdom.
We have to help and support Israel with us to fulfill God's command.
God bless you, your family. Maranatha Jesus! come soon.

Pastor shin ■

영어이야기 (44)

Benevolence and Malevolence
(선의와 악의)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은퇴자협회인 AARP Bulletin 3/4월 호는 FRAUD 2026을 특집으로, 극성을 부리는 사기(scam, fraud)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선(善)한데, 악(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선(선: good)과 악(악: evil)은 딱 2분법으로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는 우리이기에 선(선)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우리는 태어날때부터 욕망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선(善)은 자연스럽게 나오는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며, 욕심이나 질투, 경쟁은 자연스럽지만, 양보나 절제는 배워야 하기때문에, 선은 선택이며 노력의 결과라는 이론입니다. 서양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철학자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가 아프다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하거나 이유없이 연민이 생기지만, 동시에, 화나면 상처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선할수는 없지만, 조금더 선한쪽으로 움직일수 있으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가끔 잘못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성향이 되고 그사람

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어인 선(善)을 보면, 羊(양: sheep)과 말춤 언(言)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은 예로부터 순하고 온순한 동물로 제물로 바쳐지는 깨끗함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Evil을 뜻하는 악(惡)은 마음이 뒤틀리고 얽힌상태를 나타냅니다. 나쁜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어그러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호의(착한마음)를 뜻하는 Benevolence의 bene-는 to do well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좋게, 잘, 좋은, 선한, 유익한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미사인 -volence는 wish(의지)의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사원들에게 봉급외에 연금(pension)이나 의료보험등 혜택을 benefit이라함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s(실업수당 혜택), Management is trying to cut employee pay and benefits.(경영진은 사원들의 봉급과 혜택을 삭감하려고 한다). She drinks a lot less now, to the benefit of her health as a whole.(그녀는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술(또는 soft drinks)을 그전보다 훨씬 적게 마신다.) 수혜자는 beneficiary, beneficial은 유익한, benediction은 축복(좋게 말하다), 예배후의 기도, 식사전후에 하는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Maledict는 저주하다, 나쁘게 말하라는 뜻으로 접두사인 mal-은 Latin어의 malus에서 나온말로 bad(나쁜)의 뜻입니다. Spanish로 Muy

malo는 영어의 very bad or so bad의 뜻입니다. Benevolence의 반대가 되는 Malevolence는 악의(악의에 찬 마음), malnutrition(영양실조), malfunction(잘못 작동하다, 고장나다), malpractice(과실 의료행위 또는 부정 의료행위), 모기로 인해 전염되는 malaria(말라리아)도 이태리어의 mal'aria(mala aria)에서 나온말로 bad air(나쁜공기)의 뜻입니다. Aria는 공기(Latin어의 aer) 또는 melody(선율)의 뜻으로 Opera에서 특정한 감정(분위기)을 표현하는 노래부분을 뜻하는데, 대개 길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공기는 분위기를 나타내며, 분위기는 감정표현으로 나타나며, 노래와 선율로 정점에 달합니다. 도덕적 타락이나 행동, 성격, 삶전체의 악함을 나타낼때는 Wickedness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His life was full of wickedness.(그의 삶은 사악함으로 가득찼다) There was malevolence in his eyes.(그의 눈에는 악의가 서려있었다). 필요악(Necessary Evil)은 그 자체로는 악(나쁜것)이지만, 더 큰 피해를 막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어쩔수없이 선택되는 것으로, 선을 위해 감수되는 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죄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간음(마음속으로도)하는등, 도덕적 종교적인 죄는 'sin', 일반사회의 죄는 'crime'입니다. Dostoevsky(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소설에 “Crime and Punishment” (

죄와 별)이 있습니다. Malignant는 badly acting or harmful in nature의 뜻으로 malignant tumor는 악성종양을 뜻합니다(암으로 자랄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자라지 않는 종양은 양성종양(benign tumor)입니다. Benign은 자비로운, 친절하고 다정한의 뜻으로 “benign Heaven”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뜻합니다. ‘mal-’을 접두사로 가지고 있는 단어인 “malady”는 질병(disease or illness), 또는 우리말의 질환에 가까운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uffers from a rare malady.(그는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a social malady”는 “사회적 병폐”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들어 날이 갈수록 악(惡)이 마음에 가득찬 사기꾼들이 AI(인공지능)를 이용하여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예가 부쩍늘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사기)를 뜻하는 scam 또는 fraud란 단어가 전혀 낯설지않은 말이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일상적 이고 구어체인 scam이 들어간 사기행각을 보면, phone scam(전화사기), online scam(온라인 사기), romance scam(연애사기), 그리고 취직을 미끼로 던지는 employment scams등을 들수있습니다. 법적, 공식적 느낌의 어감으로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사기를 주로 뜻하는 fraud의 예를 들면, 세금을 내지않으려고 허위작성하는 tax fraud(세금사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는 insurance fraud(보험사기), financial fraud(금융사기), 영터리로 조작된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등을 들수있습니다. Scam은 하도 진짜같아서 당국은 사람들에게 zero-trust attitude(아무도 믿지않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심지어 사기당한 사

람에게 잃어버린것을 찾아준다고 하면서, 똑같은 사기꾼이 재차 사기를 치는 recovery scam도 비일비재합니다. 다른사람들을 속이기위해, 세무소직원이나 경찰인척하는 사람을 imposter라고 합니다. AI를 이용하여 목소리도 쉽게 도용되기 때문에 모르는 전화는 받지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소위 deepfake로 불리는 가짜중의 가짜는, 얼굴이나 목소리를 도용하여 video로 만들어 진짜인척하며 돈을 뜯어냅니다. 그야말로 가짜가 많은 이세상은 진짜인것 같습니다. 남을 속여서 교묘하게 돈을 사취하는것은 swindle, 예를 들면, “He swindled elderly people out of their savings. (그는 노인들을 속여 그들이 저축해둔 돈을 갈취했다) 어떤 물건에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 남을 속이는것(바가지 씌우는 것)은 rip off 로, 같은 물건을 남보다 많이 비싸게 산 경우, “I think I’ve been ripped off.”(아무래도 바가지쓴것 같다) Scammer(사기꾼)로부터 좀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수있는것은, password를 정기적으로 update하고,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지않거나, 설사 받더라도 먼저 Hello하지말고 3초이상 기다린후 아무말 없으면 끊는것이 상책입니다. Scam call은 사람이 아닌 Robocall이기 때문에 사람목소리가 아니면 대개 3초후에 끊어집니다. 중요한 전화같으면 voice mail에 message를 남기기 때문에 voice mail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회사에 Scam call 방지하는 system을 설치하라고 법적으로 압박하기때문에 예전보다는 scam call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러분이 scam call을 계속 받지않으면, 이들 Scammer들은, 계속 받지않는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피합니다. 그래

야 다른 전화번호에 걸수있는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Facebook같은 Social media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않았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는 친구만이 여러분이 올리는것을 볼수있도록 Setting에서 Private로 설정해 놓을것을 추천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이것이 Scammer의 먹이가 될수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에 은행같은곳에 login할때 password를 번호대신에 목소리로 해놓으면,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AI를 이용하여 재생시킨뒤 쉽게 여러분의 account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사용하지않는 App은 삭제>Delete)하거나 사용중인 App은 log out해서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scam을 막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Digital arrest라고 하는 Scam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평생 사는동안,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경찰같은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officers)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할것이 있다며, video call을 통해 AI로 만든 허위영장을 보여주며, 무사히 해결하기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벌금을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들은 전화를 걸어 구속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을뿐더러, 법원명령(court order)이나 구속영장(arrest warrant)은 전화나 email, 또는 social media로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껴 순간적 실수를 사기꾼들은 노리고 있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르는 전화나 email은 받지않거나 열어보지 않는것이 최상입니다. 전화나 email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

기행문

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을 다녀와서

김장숙

First Nations
Community HealthSource

치과 의사/목사사모



어릴 적에는 소풍 가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일이 왜 그리도 더디 오는지,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남았는가 하며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나이랑 맘먹는다는 말을 절감한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똑똑하게 표현했다.

일하며 아이를 키우며 바빠 지내던 삼사십 대였지만 그래도 시간들은 잘 멈추어 주었다. 인생의 절반을 꺾어 지내던 오십 대에도 잠깐 쉬어 기대도록 시간이 있었다. 60이 지나고 메디케어를 받는 나이가 되고 나니 시간이 저절로 흘러간다. 크게 한 일이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벌써 저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70대, 80대에는 시간들이 날아간다고 한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영원한 안식처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시간들이 아마도 이처럼 지나갈 것이다. 누구나 생각하듯이 나도 이 가운데 한 점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이 어디에까지 옮겨갈 수 있을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난 3월 초에 한 수도원을 방문했다. 교회 앞의 한가운데 양지바르고 전망이 좋은 땅에 나무 십자가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기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시던 수도자들의 무덤이라 했다. 베네딕토 수도원. 세상의 문화가 도달하지 않는 사막의 조용한 격리된 장소에서 사시는 수도자들. 그들에게 하루의 일과는 기도 시간과 노동 시간이라 한다. 수도자로 헌신하기로 한 후에 그곳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죽어서 그곳에 묻히신다는 삶이라... 자연 속의 고요함 가운데 사시니 그곳은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가 보다. 어쩌면 수도원에 사시는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죽음을 직면하여 사시는 지도 모른다. 영적인 일상의 삶을 추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수도자들은 얼마만큼의 경지에 이르시다가 하나님을 뵈옵는 것일까? 자동차로 산타페를 지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84번 하이웨이 (US Highway 84)로 들어간다. 에스파놀라 (Española)를 지나 아비큐 (Abiquiu) 지역으로 들어서면 한가한 농촌 풍경이 시작되고 차도 퐁퐁이 지나가는 일차선 도로로 바뀐다. 구불구불 산길로 올라가는가 하고 경치를 즐기다 보면 왼쪽으로 아비큐 레이크 (Abiquiu Reservoir)이 보여진다. 곧 화가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의 예술세계로 유명한 고스트 랜치 (Ghost Ranch)를 지난다. 그녀가 즐겨 그리던 특별하게 보이는 Pedernal (페데날) 산이 시야에 계속 보여서 눈을 유혹한다. 어쩌면 산봉우리가 저리도 넓게 편편할 수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 비포장도로 Forest Road 151로 들어가는 길을 왼쪽에서 찾아야 하므로 조금 긴장하여 속도를 늦추었더니 뒤의 차들이 못 참고서 썩썩 일차선 도로에서 추월해갔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비포장도로는 13 마일의 거리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오롯이 나 혼자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는 방문이라서 도로가 익숙해서 다행이었다. 집에서 출발을 늦게 하였기에 저녁 노을이 지나가고 산 속의 외로운 길에 적막한 어두움이 내려오고 있었다. 빨간 절벽 위를 따라 차마강 (Chama River) 협곡을 내려다보며 구

비구비 보이는 길을 천천히 달렸다. 나는 이 13 마일의 구간이 좋다. 자갈이 깔려 있다가 울퉁불퉁한 길로 바뀌어서 텅텅거리며 가는 동안에 이 도로의 거리와 지나가는 시간은 나를 세상에서 격리시킨다. 수도원에서 얘기하는 “Solitude and Silent (고독과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기다 보니 마침내 수도원에 도착하였고 아직도 희미한 낮의 빛이 길을 비추어 주었다. (표지의 수도원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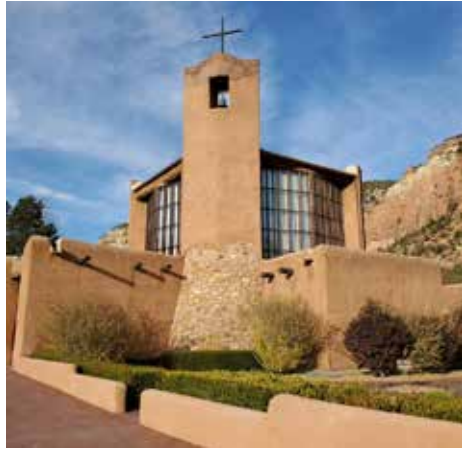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 내가 방문한 수도원의 이름이다. 검은 옷을 입고 말 없이 움직이는 그들을 대면하며, 그들이 기도시간에 드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읊조리는 찬트를 계속 듣다 보면 침묵의 세계로 빠져든다. 교회에는 좌 우에 콰이어 장의자들이 있어서 수도자들이 두 곳에 나뉘어 앉는다. 그 곳이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이다.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왼쪽에서 반아서 답례로 맞추고 계속하여 그들의 순서에 따라 찬트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발표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7 번의 기도를 드린다. 방문객은 기도 시간에 참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찬트 노래를 함께 해도 되고 안하고 듣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매일 미사 (Mass)도 있다. 이때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영성체의 시간이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 만이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 침묵이다.

이곳은 셀폰이 안 된다.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에 특정한 곳에서 30-4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자 배려 시간이 있다.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왔어도 서로가 말하지 않도록 권한다. 식사 시간은 당연하고, 방 안에서 조차도 말이 울리고 새어 나가 옆 방의 방문자의 침묵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의 사항에 적혀 있다. 곳곳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과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다. 처음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을 때 그는 차마강 옆에 놓아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의자에 앉으면 강물이 햇살을 받으며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처럼 지나가버린다. 강에는 오리가 헤엄쳐 다니고 강둑에는 여남은 오리들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넓게 펼쳐진 야생 식물들의 서식지 너머로 빨간 사암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그 위로 산 위에는 파아란 하늘이 높게 청정해 보인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과 만나려는 것이다. 침묵하고 모든 말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보라는 권유이다.

이번의 방문은 내 생일을 위한 여행으로 3월이었기에 사순절(Lent) 기간의 찬트를 하였다. 수도사들이 라틴어로 하시니까 곧잘 따라 하던 방문자들이 오피스 책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영어가 제 2 외국어인 나는 물론 영어로 할 때도 멍하니 쳐다보는 적이 적지 않았다. 순간 동질감을 갖으니 행복해졌다. 지난 가을에 남편하고 같이 왔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거위들이 쌍쌍이 끼워 끼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와서 논다. 물 위에서 헤엄치다가 소리지르며 날아가고 동네가 시끄럽게 다시 찾아와서 돌아다닌다. 봄에는 짝짓기를 하는 시기이고 가을에는 따뜻한 곳으로 철새이동을 한다고 한다. 짝을 짓고 사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거늘 수도사님들은 어이하여 홀로 이처럼 평생을 사시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면 캄캄한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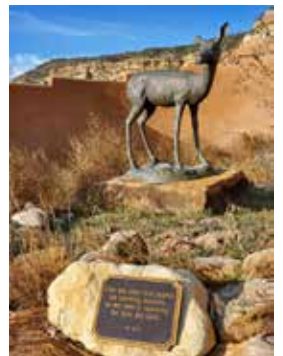
에 별이 수도 없이 떠있다. 교회 건물에 들어가 마지막 기도인 Compline prayer(종과(終課)기도, 저녁기도)를 드린다. 수도원장님이 뿌려 주시는 평안한 밤을 기원하는 성수를 받고 나오면 하늘은 그야말로 별의 천국이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사막지대이다 보니 공해라든지 전기 불빛의 근원이 없는데 다가 고도가 높다 보니(Altitude 7,100 ft) 별빛이 찬란하다고 한다. 새벽 밤 기도(Vigils)를 참여하려고 방문자 숙소에서 교회까지 걸어 오르면 잔잔한 달 빛에 사 그러져가는 별들이 보인다. 아름답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기도가 익숙하여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참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온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식사는 검소하고 매우 절제되어 있다. 그들은 점심 식사에 그들의 식당(Refractory)에 방문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식사 방식에 동참하도록 한다. 아마도 식당은 가장 잘 꾸며놓은 구조물인가 보다. 그들 공동체가 보내는 가장 화려한(?) 장소라 생각한다. 통나무로 높은 천정을 장식하고 한 쪽 전 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처리했다. 모든 테이블과 의자는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졌다. 식사 전과 후에 감사의 기도 노래를 부르고 써빙을 받으면서 부폐식 식사를 가져다 먹는데 샐러드와 베지테리안 음식같은 메뉴가 전부이다. 시간표에는 “Main”이란 표시가 있어서 기대를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팠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한

분이 계속해서 성경말씀과 좋은 글을 높은 고정석에 앉아서 읽어서 들려주었다. 그 분은 금식인가보다. 물론 모두가 침묵. 오직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나의 샐러드 볼에 들어있는 그곳에서 재배하여 나온 듯 한 방울 토마토를 먹는데 포크로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튀겨나가고 찍어지질 않았다. 나는 소리를 죽이려 급기야는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모두 날씬하시다. 아마도 그들의 식성과 방문자들은 다른 것을 배려함인지, 방문자들의 식당에서 먹는 저녁식사는 간단한 식사라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킨이나 햄과 치즈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키워서 얻은 푸른 달걀과 노란 달걀이 삶아져 항상 바스켓 가득이 테이블에 놓여있었다.

수도사(Monk)는 Brother와 Father로 함께 어우러져서 말한다. 신학을 공부하여 서품을 받고 예배 때 집례를 하시는 분들과 수도자의 길을 가면서 그 밖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차이점이다. 무덤의 나무 십자가 묘비에는 Brother 혹은 Father(OSB)조차 쓰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더 많았다. 수도원장을 하여 큰 몫을 감당하신 분이나 건물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애쓰며 일하신 분이나 흠으로 돌아가는 무덤의 묘비에는 시편 42편 1절이 적힌 동판(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서는 모두가 똑같이 아무 장식이 없는 나무 십자가에 이름만 달랑 적혀있는 그들의 모습 앞에 존경하며 머리가 숙여진다.



시편 42편 1절이 적힌 동판(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1 페이지에서 계속 > 수도원을 다녀와서

시편을 Prayer (The psalms as prayer)라는 한 페이지 글이 인쇄되어 진열되어 있었다. 들고 와서 방에서 읽고나니 맘에 남았다. A spiritual writer, Father Ronald Rolheiser 이 쓰신 글이다. “God behaves in the psalms in ways he is not allowed to behave in systemic theology(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체계 신학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신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자비와 우리를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느낌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한다. 수도원에서의 모든 기도시간은 거의 모두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시편 기도로 솔직하게 그 분께 다 털어버리고 그 품에 안기어서 요한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나 스스로가 되어보자. Monastery of Christ in the Desert(사막의 그리스도 수도원)는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처럼 아름다운 장소이다. 고요하게 침묵하는 기도의 방식이 그 곳에서 호강하며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도 일에 집중하여 계속하여 일하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내가 가드닝(Gardening)에 집중해서 끝없이 풀을 뽑고 있을 때, 땅을 파고 있을 때 Solitude and Silent(고독과 침묵)의 세계가 아닐까? 또한 내가 집중해서 한 치아를 계속 치료하고 있을 때(나의 직업이 치과의사이니까) 그 순간이 Solitude and Silent(고독과 침묵) 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며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시간들을 허락해주시길 원한다. ■

<16 페이지에서 계속 > 화려한 내부와 화장실

화장실의 페이퍼 타월은 값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치되지 않았을 때 손님이 느끼는 당혹감은 매우 큼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선언보다 누군가의 젖은 손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깨끗하고 풍성할 때, 그 공간과 사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걸을 뉘기보다 안을 채우는 하루,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천사를 조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채워진 페이퍼 타월 한 장이, 어쩌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환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

<15 페이지에서 계속 > 구브로 (Cyprus): 바나바의 고향

다시 복음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회가 단순히 선교를 후원하는 기관이 아닌 그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브로 사역은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현대 선교를 위한 구브로 모델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연고와 현지 지식을 활용한 접근은 현대 선교의 ‘내부자 전략’이 가진 효율성을 입증합니다. 살라미라는 경제적 중심지와 바보라는 정치적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현대의 세속화된 살라미와 바보는 고도의 지성사회와 이교적 문화 현장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구브로 섬 사역은 제1차 전도여행의 시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7. 결론: 구브로 사역이 증거하는 선교의 본질

<19 페이지에서 계속 > 영어 이야기 - 선의와 악의

한 scammer들은 잡히면 연방법의 wire fraud로 기소됩니다. Internet이 없던 시절에 전화는 유선(wire) 전화였기에 wire fraud라 부르게 되었지만, 지금은 유선/무선을 가리지 않고, phone calls, emails, text messages, internet등을 이용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Phone scams and email scams can be charged as wire fraud.” (전화나 email사기는 wire fraud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He fell for an online scam.”(그는 online사기에 말려들었다) “He was arrested for fraud.” (그는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

감사합니다. ■

본 탐사 보고서를 통해 고찰한 구브로 섬의 선교사역은 역사적 신뢰성, 지리적 전략성, 그리고 영적 역동성이 완벽하게 통합된 선교의 모형입니다. 누가 기록한 ‘총독’ 칭호의 정확성은 고고학적 비문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는 180km의 여정은 복음이 어떻게 사회의 변방에서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하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회심과 바예수의 굴복은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권능의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는 사도행전의 약속은 1세기 구브로에서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모든 선교적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구브로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살라미’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보’에서 영적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도록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 (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eu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
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에라 차베스 Etta Chavez
Coldwel Banker Legacy
(505-720-2477)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배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아네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
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Website:ichibanabq.com

사쿠라 스시 엔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엔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건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약국

(Compounding Pharmacy)
Pharmacy on the Bosque
(김미정)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505-546-9217
(fax: 505-944-9320)
www.potbrx.com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 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r-
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
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 (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r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Lotus Dumpling House
1807 2nd St. #35
Santa Fe
(505-303-3740)
최리엔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
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
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6년 5/6월호 발행일 : 2026.5.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발행처: 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Website: Voice.KumcABQ.com

PHARMACY ON THE BOSQUE
보스케약국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약학박사

COMPOUNDING PHARMACY

10:00 am - 1:30 pm, 2:00 pm - 5:00pm (Mon-Fri)
 전화 : (505) 546-9217

Email: infopotbrx@gmail.com
 Website: https://www.potbrx.com
 Facebook: Pharmacy on the Bosque 

6341 Riverside Plaza Lane, NW, Suite B
 Albuquerque, NM 87120

ETTA CHAVEZ 
애라 차베스 

REALTOR Associate Broker

Cell: 505-720-2477
 Office: 505-898-2700
 Realty@EttaChavez.com
 EChavez.cblegacy.com
 10300 Cottonwood Park NW
 Albuquerque, NM 87114

 COLDWELL BANKER LEGACY



UNM에서 어린이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음악치료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학 논문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Pub Med> 자료에 의하면 1954년 이래로 약 3,400여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 질환 및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음악 교육을 통하여 질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 뉴멕시코 주에서도 약물 및 술 중독의 문제점과 그 예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독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아래의 연구소에서 음악치료 연구를 하고 있기에 소개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참여 대상자: 연령, 8~16세. 임신 전 음주

습관이 있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 집중력 문제, 과제 수행 지장, 감정 및 행동 조절 장애 혹은 학습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는 아동

2. 연구 방법: 10개월 동안 전자 키보드를 사용한 정기적 음악 교육. Magnetoencephalography (MEG) 및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사용한 뇌파 및 두뇌의 활동 측정, 행동 변화 측정.

3. 참여자 보상: 총 8회 측정, 1회 마다 \$70 지급. 음악 교육에 사용한 전자 키보드는 연구 참여 종료시 참여자에게 드립니다.

4. 연락처: CHILDSTUDY@MRN.ORG 전화: 505-226-1303.

5. 위치: The Mind Research Network, 1101 Yale Blvd., UNM Health Science North Campus. (기사 제보: UNM Health Science Center / 최성원 연구원)

Church Yard
sale
 Saturday, May 2, 2026
 8:30AM-2PM

교회야드세일

알버커키감리교회에서 5월 2일(토) 아침, 남선교회주최로 대대적인 가라지 세일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광야의 소리에 현장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voice.kumcabq.com

광고 안내

후면표지는 비즈니스 유료광고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야의 소리(voice.kumcabq.com)에서 신청서를 디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에 관한 질문은 이메일 VOICEofNM@gmail.com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